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3년 8월 첫 번째 28권 14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미군, 카투사에게 장학금 전달
국방일보 마라톤 대회 공고

3면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마디

4,5면 부대 탐방

17항공여단1-52항공대대



6면 자유 공간

이현규의축구이야기

7면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8면 안녕하세요

유니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9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 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전 50주년 기념 행사

1953년 7월 27일 오전, 판문점에 모인 미국, 중국, 북한의 대표간에 정전협정이 맺어졌고, 오후 10시를 기해 그 효력이 발휘되었다. 남으로, 북으로 한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모든 전선에서 3년간에 걸쳐 이어진 포성이 멎었다.

그후 반세기가 흐른 27일, 전국적으로도 6.25 전쟁 조형물 제막식을 비롯한 기념 행사들이 있었고, 유엔사에서도 정전협정 50주년을 맞아 국내외 주요인사들이 모여 기념하고, 참전용사들은 그때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행사들을 주관하였다.

오전 9시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식에는 많은 참전용사들이 운집하여 기념비 제막을 지켜봤고, 공동경비구역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Leon J. LaPorte 대장은 기념식의 환영사에서 "6.25이후 50년,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 되었다"며 "참전용사들은 한국의 발전에 놀라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전국 대표 자격으로 연단에 선 Helen Clark 뉴질랜드 수상은 "정전 50년이 지났어도 현재 오히려 심화되는 긴장상태는 아직 우리에게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려준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 사회의 정상적 일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후 9시부터 용산 사우스스포츠의 롬바르도 연병장에서는 실제 정전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시각인 오후 10시를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다. 한국, 미국, 영국, 터키 등 참전국들로 구성된 의장대가 연병장에 늘어진 가운데 참전 21개국을 대표해서 온 주요 인사들이 각자 헌화를 했고 미 2사단에서 온 포병들의 예포가 이어졌다. 행사는 마지막으로 모든 조명이 꺼지고 행사장에 모인 모든 참가자들이 묵념의 시간을 가진 후 끝이 났다.

상병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27일 오전 판문점 근처 자유의 집에 21개국의 참전용사들과 내외신 기자단, 국내외 주요인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연단에 선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Leon LaPorte 대장이 환영사를 낭독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비치고 있다.

미 육군 신속기동여단 내한

미 육군의 최선에 신속기동부대인 2사단 3여단 소속 스트라이커 1개 소대가 31일 오후 워싱턴 포트 루이스에서 C-17 수송기 편으로 오산비행장에 도착, 이동하여 열흘간의 훈련을 개시하였다. 6대의 차량과 59명의 병력은 경기도 포천의 영평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 등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한국 지형과 상황에 친숙해질 것이며, 훈련을 마치면 다시 미 본토로 돌아갈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분쟁지역에 신속히 파견가능한 이 부대의 창설 후 첫번째 해외 훈련이기도 하다.

스트라이커 부대의 핵심인 스트라이커(Stryker) 차량은 케도식이 아닌 차륜식으로 가벼워서 항공기를 이용한 수송에 용이하고, 최고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다. 8개의 바퀴에는 각각 CTIS (Central Tire Inflation System)라는 타이어 팽창 시스템이 있어 펑크를 방지하며, 펑크가 난다 해도 주행 가능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14.5밀리의 장갑을 갖추어 있으며 장갑을 더할 시 RPG로켓으로부터도 보호가 가능하다. 또 다용도로 이

용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 보병 전투장갑 차량, 지휘관용 차량, 의무 후송 차량, 대전차 유도미사일 차량, 화생방 정찰 차량, 공병 분대 차량 등 필요에 따라 여러가지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트라이커 파견부대 공보담당으로 함께 내한한 미 통합수송사령부 공보실장 Joseph Piek 중령은 "보병 수송차량으로서의 스트라이커 차량은 매우 빠르고, 민첩하며, 소음이 적고 그에 더해 생존성까지 제 공하여 보병들을 비롯한 실제 운용병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며 "미 육군은 3년 전부터 기존 중장갑 여단과 경보병 여단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스트라이커 여단은 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스트라이커 부대가 최초로 한국



Eighth Army PAO Sgt. Lisa Jendry

미 육군의 신속기동여단 스트라이커 부대의 병사들이 경기도 포천 영평 사격장에서 4일 실시된 기동훈련 도중 보병 전투장갑 스트라이커 차량에서 하차, 작전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을 방문한 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인 Leon J. LaPorte 대장이 스트라이커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부대의 일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미 육군 측에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상병 강병삼

미군, 카투사에게 장학금 전달

지난 7월 7일, 캠프 험프리스에 위치한 미 6항공여단 작전처 소속의 Charles Dalcourt 소령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 후 이 날 전역한, 한국군지원단 평택지역대 소속 예비역 병장 염정섭에게 전역 후 사용할 2년분의 등록금인 미화 1,200 달러를 전달했다.

복무기간 동안 뛰어난 업무능력과 모범적인 근무 자세로 동료 미군들과 카투사에게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진 염정섭 예비역 병장은 "Dalcourt 소령이 자기 휘하의 병사가 전역 후에도 학업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주기로 한 것 같다"며 장학금을 받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염정섭 예비역 병장은 본인이 다른 카투사들과 다르게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Dalcourt 소령에 의하면, 염정섭 예비역 병장은 업무 태도나 그 성과에서 다른 카투사나 미군들을 월등히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엄격하기로 알려진 초급 지휘자 양성 과정인 PLDC (Primary Leadership Development Course)에 지원하여 전체 200명의 교육생 중 2등의 성적을 거두며 Gold Tiger를 수상하기도 했고, 여단 보드에 나가서 우승 또한 했다고 한다.

염정섭 예비역 병장과 같은 소속으로 1년 반을 함께 보내고 Dalcourt 소령과도 친분이 있는 권영준 상병은 "염정섭 예비역 병장은 모든 일을 꼼꼼하게 잘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Charles Dalcourt 소령은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의 모습을 자주 보았다"며 결에서 그들을 지켜본 소감을 밝혔다.



Charles Dalcourt 소령



염정섭 예비역 병장

염정섭 예비역 병장과 같은 카투사들의 성실한 근무자세 및 우수성은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군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국군의 위상 제고는 물론 한국과 미국의 우호 증진에 지대한 기여를 하는 것이며, 실제로 많은 카투사들이 함께 근무하는 미군 지휘관과 동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염정섭 예비역 병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Dalcourt 소령은 "나에게 있어서 염정섭 병장은 카투사, 한국군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나는 카투사, 한국군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염정섭 예비역 병장은 "군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도 많고, 카투사로서 군복무를 한 것 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끼는데, 거기에다가 능력까지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며 장학금을 받은 소감을 밝혔다.

염정섭 예비역 병장은 또한, 한국군지원단에서 적극 추진 중인 미군을 대상으로 한 자가초청 및 지역명소 안내, 한국어 교육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미군과의 우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 미군에게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리는 '군사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

미 8군 공보실 일병 윤종필

카투사지는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공인 미국방송 공인 신문임. 주한 미군 인쇄장에서 1회 3,500부씩 월 2회 발행됨.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 육군성의 그것은 아님. 카투사지는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됨.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C-2330A 이머 전화 번호는 723-6460/8376/4683/7998(fax)임.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낼 것임. 전자우편 주소는 kimddong@usfk.korea.army.mil임.

- 미8군 사령관
- 중장 찰스 씨 캠펠
- 한국군지원단장
- 대령 김덕근
- 미8군 공보실장
-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 대위(진) 이세희
- 편집장
- 병장 김대동
- 기자
- 상병 강병삼
- 상병 장승모



- Eighth U.S. Army Commander
- LTG Charles C. Campbell
-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 LTC Steven A. Boylan
- Command Information OIC
- CPT Mary J. Constantino
- Editor
- SGT Kim, Dae Dong
- Staff Writers
- CPL Kang, Byung Sam
- CPL Jang, Seung Mo
- Special Assistant
- Mr. In, Pu Hyun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or Eighth U.S.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3,5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72A,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8376/4681/7886(fax).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kimddong@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공 고

제 1회 국방일보 전우마라톤 대회
The 1st Korea Defense Daily Comrade Marathon

국방전문 홍보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건군 55주년을 축하하고 한미동맹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10월 12일(일) 임진각 일대에서 제 1회 전우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전군 차원에서 창군 이래 처음 열리는 이 대회는 하프코스(21.0975km)와 건강달리기(5km) 두 종목으로 나뉘어 펼쳐지며, 대회장에는 국군방송 위문열차 특별공연을 비롯해 건군 55주년, 한미동맹 50주년 기념 사진전, 연예병사 사인회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미군 장병들도 참가 가능합니다.

- 주최: 국방일보
- 후원: 파주시
- 일시: 2003년 10월 12일(일) 10:00-16:00
- 장소: 임진각 일대
- 참가신청: 2003년 7월 1일-8월 31일까지
- 참가방법: 현역병- 각군 지휘계통 / 일반인- 인터넷 접수
- 참가인원: 각 코스별 선착순 3,000명
- 참가비: 현역병(미군은 specialist까지) - 무료
- 간부, 미군간부, 일반인 - 하프 25,000원/ 건강 15,000원
- 시상: 하프 부문 1-6위, 건강 부문 1-3위 국방부장관상장 등 부상 (참가자 기념품 지급 및 완주메달 지급)

코스: 하프 21.0975km 임진각-통일로-37국도(적성방향)-두포리IC(반환) / 건강 5km 임진각-나루터집(좌회)-통일대교 남단(반환)

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집합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723-6460

E-mail:kimddong@usfk.korea.army.mil

■ 군상식

SEAWOLF

SEAWOLF 계획은 다음 세기에 구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잠수함의 우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첫번째 공격용 잠수함은 새로운 무기들과 센서, 추진력 그리고 통신 장비들을 장착하여 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표였는 바, 1996년 여름 SEAWOLF는



제공사진

개조 중인 Seawolf 잠수함의 모습

기대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시험 계획에는 첫번째 잠수, 음향측정, 장비검사 및 승무원들의 해상 훈련등이 포함되었다.

Seawolf(SSN-21)는 General Dynamics사의 자회사인 Electric Boat 조선소에서 1997. 7. 19 취역하였다.

Seawolf 급의 잠수함은 세계의 대부분의 잠수함이나 선박들에 대해서 독자

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첫번째 임무는 구 소련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미국의 목표물들을 공격하기 전에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구 소련의 잠수함들은 수중에서 끊임 없이 이동하는 잠수함의 특징 때문에 그들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대 중 생존 확률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구 소련의 대잠수함, 대함 능력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Seawolf의 임무이다.

Seawolf의 혼합된 전자 장비들의 조합은 탐색, 경보, 생존, 통신 능력을 강화시켜주었기에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Seawolf는 미국의 어느 잠수함보다도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운항중 소음 감소에 가장 중점을 두고 디자인 되었다. 이를 위해 잠수함 전체를 특수 코팅하여 음향 레벨을 최소화 시켰고 잠수함의 추진

장치는 전속 운항시에도 688급의 10배, Los Angeles 688급의 최초 모델들보다 70배나 소음을 줄였다.

Seawolf의 정속한 추진 장치는 I-688 급의 두배나 빠른 전속 속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전속 속도란 잠수함이 적 잠수함의 추적을 받지 않고 계속 운항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하는데 Seawolf의 추진 장치는 I-688 급보다 75% 이상 향상시켰

다. 즉 Seawolf는 적에게 탐지되기 전까지 75% 빠르게 운항할 수 있다.

또한 Los Angeles(SSN 688) 급 보다 두배 많은 어뢰 발사관과 30% 이상 증가된 무기들로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

잠수함의 건조는 선체의 각 부분을 이어주는 새로운 용접 물질 개발의 필요성을 낳았다.

Seawolf는 HY80 강철 대신 선체 전체를 HY-100 강철을 사용하여 건조된 첫번째 미국의 공격용 잠수함이다.

HY-100 강철은 1960년대에 해군의 심해 잠수정인 SEA CLIFF 등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강철의 사용으로 10,000 피트 이상의 잠수가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독일의 Rotterdamsche Droogdok Maatschappij B.V에서 디자인한 잠수함인 Moray에 HY-100 강철이 사용되어 300m 까지의 작전 잠수 및 360m 까지의 일시적인 잠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Seawolf 건조 프로젝트에는 1991년 까지 건조된 잠수함들 중 가장 비싼 비용이 소요되어, 12척의 건조 비용을 현재가로 환산하면 336억 달러나 되었으며 1992년까지 29척의 건조가 계획되어 있었다. 냉전 후 미 해군의 함정 건조 비용 중 25% 이상이 Seawolf 계획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제공사진

태평양 바다에서 운항하고 있는 잠수정

1992년의 연두 교서에서 과도한 비용의 지출을 이유로 두번째, 세번째 Seawolf 건조 비용중 2,765,900,000 달러를 삭감한다고 발표하여 한때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으나 클린턴 대통령은 가장 미래의 새로운 공격용 잠수함으로 비용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SSN-23의 건조를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1998 회계년도에 153,400,000 달러의 예산이 신청된 것이 세번째 Seawolf의 건조에 필요한 마지막 예산 증액분이었으며 이로써 Seawolf 건조 계획은 마무리되게 되었다.

두번째 Seawolf 인 CONNECTICUT (SSN 22)함은 1998년 12월에 인도될 예정이며 세번째의 SSN 23 은 현재 2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에 인도될 예정이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자료출처: www.militaryreview.com

카투사들의 한마디

ÁxÀüÇùÁx 50ÁÖ³âÀ» ,ÁÀìÇĬ,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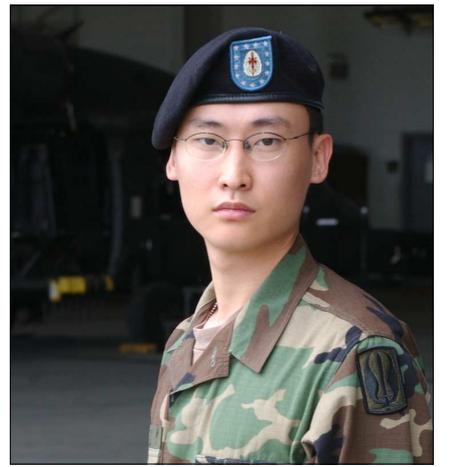
1-52 항공대대 C중대 일병 우현철



1-52 항공대대 B중대 상병 김준하



1-52 항공대대 C중대 이병 이형석



1-52 항공대대 D중대 상병 윤진형

6.25가 끝난지 50년, 그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남한의 눈부신 경제 발전, 북한과의 관계개선, 그로인한 남북정상회담까지. 그러나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의지만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6.25 때 숨겨진 젊은 녀들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그날까지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말고 맡은 임무에 충실하는 군인의 기본자세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전협상 50주년의 해입니다. 얼마 전 정훈시간에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을 때 다양한 자료들을 보며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역 군인으로서 저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를 지키는 일이라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한국전쟁이라고도 하는 6.25가 발발한지 53주년이 지났습니다.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는 이유이기도 한 전쟁이지만 직접 피해자는 아니기에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휴전상태라는 점을 명심하고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국가안보의 큰 축이 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공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 북한, 미국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둘로 나뉘는 벌써 50년이나 됐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최근 들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같은 남북간의 교류가 차츰 늘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군사적 긴장감은 여전히 줄지 않은 느낌입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당사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50년 전을 떠올리며 군인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뚜렷해집니다.



카투사 신문 강병삼

있던 리더십을 많이 키울 수 있다.

이곳의 카투사들은 전역자가 있을 경우 데이룸에 모여 환송하고 매달 마지막 주에는 '이등병의 날' 행사를 열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병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부대원들 간에 가까이 지내고 분위기도 좋은데, 규정 안에서 자율성을 인정하되 이를 어길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한다. 본부중대 오세진 이병은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여단 본부와 떨어져 있는 파견부대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분위기와 리더십이 강조되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중시된다.

이들은 '단결체육'이라는 이름으로 화요일마다 카투사들이 모여 함께 운동을 하며, 막사 앞에 커피 하우스라는 공간이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열려 있어 카투사들이 저녁에 들러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또

매주 목요일 오후마다 1시간 반 정도 미군장교와 영어 잘하는 카투사들이 교관을 맡아 영어교육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여가시간 활용을 엿볼 수 있는 대목

며칠째 내리던 비가 그치고 이제는 태양이 작열하는 어느 한낮에 K-16 서울공항의 드넓은 활주로에 서니, 잘 닦아 놓은 여러 대의 UH-60A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C-12 수송기들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광경이 들어온다. 줄맞춰 앉아 있는 이들의 뒤로 활주로를 시원하게 가로지른 후 떠올라 몇 초만에 어디론가 사라지는 군용기의 모습 또한 인상적이다. 이곳에 있는 항공기 대부분이 바로 이번에 소개할 17항공여단 52항공연대 1대대(이하 1-52대대) 소속이다.



17 항공여단 1-52 대대

1-52nd Aviation Battalion, 17th Aviation Brigade

1-52대대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40년 6월 1일 204병참대대로 창설되어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1949년 52수송대대 본부중대로 개편된 이후에는 한국전에 참전하여 9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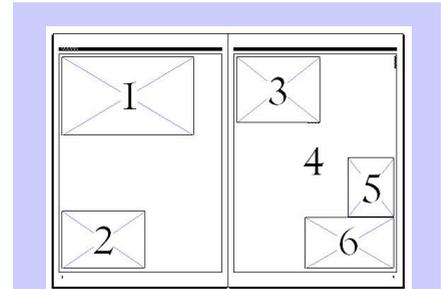
전투를 치렀고, 그러던 중 대대장 John U. D. Page 중령이 전사하기도 했다.(춘천에 있는 캠프 페이지는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1962년에는 52항공연대 본부중대로 임무를 전환하여 월남전에서 17회의 전투에 참가하였다. 1988년에는 501항공연대 1대대로 증편되었고, 1996년 3월부터 부대개편에 따라 현재의 17항공여단 1-52대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52대대는 여러 가지의 항공지원을 담당하는 부대이다. 장군 등 주요 인사의 수송, 조난당한 항공기의 구조, 비무장지대의 정찰(이것은 일정 자격을 갖춘 파일럿들만 가능하다) 등의 개성적인 임무 또한 맡고 있다. A, B, C 3개의 비행중대

가 서로 다른 임무를 띄고 있고 본부중대는 전투지원, D중대는 정비 등을 맡고 있다. 또 C-12 수송기 부대인 6-52대대가 배속되어 있기도 하다.

대대에 있는 카투사들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주로 행정, 인사 등의 지원 업무를 맡고 있으며 공중강습훈련이나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이나 할 때 통역 업무도 하고 있다. 항공관제와 통신에서도 카투사들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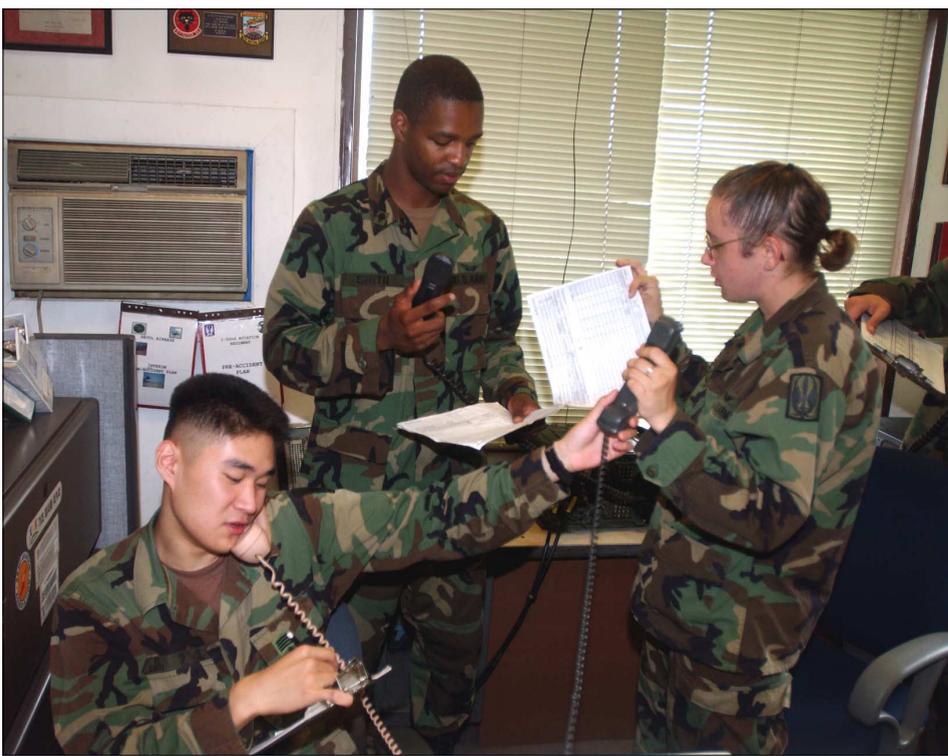
1년에 보통 4번의 훈련이 있는데 대대 FTX의 경우 대대 전체가 야전에서 사무실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1-52대대만의 특징적인 훈련으로는 Dragon's Blood가 있다. 4월과 10월 각각 1번씩 실시되는 이 훈련은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9시 정도까지 밤새워 이뤄진다. 오후에 훈련참가자 전원이 무기와 장비를 챙겨 블랙호크에 오르면 헬리콥터들이 편대를 이뤄 훈련지로 날아간다. 이들은 NCO 2-3명 정도가 포함된 팀을 이루고 NCO들이 돌아가면서 팀 리더를 맡으며 지도와 무전 교신을 통해 팀을 지정된 여러가지 지점까지 이끌어야 하는데, 그곳에서는 부상자 처치, 의무 후송, 채독, 무기 관리 등의 CTT 과제를 통과하고 지점 사이에는 공포탄, 조명탄 등을 사용한 대항군과의 모의 교전을 실시하며 그 직후 전투의 분석을 한다. 이 훈련을 통해 이들은 실전 감각을 익히고 NCO들은 평소 바쁜 비행스케줄과 행정업무 등으로 발휘가 힘들



1. UH-60 헬리콥터를 타고 훈련지에 도착하자마자 신속히 내려 경계자세를 취하는 1-52대대원들의 모습
2. 본부중대 이해명 일병이 주문한 타이어를 운반하고 있다.
3. 본부중대 최범석 병장, Antonio Smith 상병, Jamie Willis 이병(왼쪽부터)이 여러 곳과 교신하며 관제 업무를 하고 있다.
4. 대대원들을 훈련지에 내리고 편대를 지어 K-16으로 귀환하는 UH-60 헬리콥터들의 모습
5. 6-52대대 A중대 허철호 상병이 C-12수송기의 비행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6. 드래곤스 블러드 훈련에서 본부중대 김병규 상병(오른쪽)을 포함한 팀이 전투준비를 갖추고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이다.

1-52대대의 대외 활동은 활발한데 얼마 전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그리스도의 집' 고아원을 방문했고 그곳의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쳐 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또 부대 근처의 참빛 고아원을 돕기 위한 기금을 조성, 17항공여단장의 이름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또 '거북이 마라톤 대회'라는 이름으로 서울공항에 있는 한국 공군 장병들과 미군부대 병사들이 함께 활동 주로 주변 10km 정도를 뛰는 연례행사를 가지고 있으며, 봄에는 함께 축구, 배구, 농구 등을 하는 체육대회도 열고 있다. 그리고 부대에 태권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 매주 월요일 카투사와 미군 각각 20명 정도가 자율적으로 태권도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1-52대대는 4월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태권도복 100벌을 받기도 했고, 5월의 2 지역 카투사/미군 친선주간 개막행사에서는 1-52대대, 164항공관제단의 카투사와 미군들이 단체로 격파 등의 시범을 보인 적도 있다. 친선주간에는 또한 '패밀리데이' 행사를 열어 부대원들의 친구와 가족들을 초청, 헬리콥터와 수송기 등을 전시해 보여주고, 막사에 데려가 이들의 생활상을 알려주고, 식당에서 식사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1-52대대 선임병장 최준희 병장은 "선임병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큰 행사가 패밀리데이였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잘 되었고 행사의 내용이나 참가자들의 반응도 좋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본부중대 차량정비과 공구보급병 이해명 일병은 "부품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부품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

출력하고 무거운 부품을 직접 트럭에 실어 가져오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자신의 일에 대해 설명했다.

"훈련 갈 때도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데 공항에서 일하는 것은 매력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D 중대의 윤진형 상병은 "1-52대대의 가장 큰 특성이라면 다른 부대에 비해 작지만 짜임새있고 부대원들간 단합이 잘 되는 부대"라고 말했다.

본부중대 작전과 운항실 최범석 병장도 "화합이 잘 되는, 부대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위기"라며 "원래 항공쪽을 좋아해서 항공동호회에 들기도 했는데 운 좋게 항공대에 올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지면을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행 수송기 예약 전화가 이곳 운항실로 자주 걸려오는데, 예약은 17항공여단 작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2대대 본부중대장 Charles Johnson 대위는 "우리는 최고의 카투사들을 가지고 있다"며 "매일의 비행 업무에서 착륙허가를 얻거나 비행장소를 협의하는 일 등에서 그들의 어학 능력

은 필수적이며 군수와 등에서 보급물자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대로 주저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 전진하십시오. 그에 따른 약간의 실수는 우리(지휘관들)가 감수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C중대 1소대 선임Charles Kaltenthaler 중사는 "카투사들은 정비 등 항공기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행정지원 업무 등을 통해 우리가 항공기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어딜 가든지 카투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있는 군생활을 하십시오. 카투사가 되기 위해 지원한 데는 자신만의 목표가 있고 지향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군생활동안 처음에 가졌던 마음 끝까지 이어갔으면 합니다. 또 군생활하는데 있어 언어장벽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힘들 때가 한번씩은 있는데 그럴 때는 주변에 전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곳이면, 보이지 않는 곳이면 묵묵히 일하는 카투사들이지만 때때로 자신의 부대에서 자신의 역량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를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미 8군 사령관 Charles C. Campbell 중장은 올해의 카투사/미군 친선주간 개막식에서 카투사들에게 "여러분은 인정받고 있다"고 격려한 바 있다. JSA 경비 등 여러 임무가 한국군측으로 이양되는 것으로 협의되고 용산기지이전 논의도 활발해 지는 등, 북핵으로 커지는 긴장 속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 격동의 한반도,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선 카투사들의 분투를 기대해 본다. ■

상병 강병삼

다.

"좀더 나은 군인이 되고 싶다면 좋은 NCO를 찾아 그가 매일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따라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최준희 병장은 "병사들 중 다른사람

들에 게 잘 말하지 못하는 힘든 사정을 선임병장에게 찾아와 이야기하고 나중에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얘기해 줄 때 보람을 느낀다"고 선임병장의 일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또 "상병 쯤 되면 NCO라 PT나 제식 훈련등에 대해 교육하는데 이후 자신의 색선에 가서 잘 해낼 때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카투사 신문 강병삼

지상에 손가락 하나

현기영 장편소설



BESTSELLER

지상에 손가락 하나

현기영 / 실천문학사

197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중진 작가의 장편소설. 흥흥한 세월 속에서 벌레들을 가지고 놀던 외로운 아이가 어엿한 문학소년으로 커 가는 과정이 자연과 인간, 신화와 역사, 삶과 죽음과 함께 그려진 성장 소설로 작가 특유의 중후한 문체가 돋보인다. 이 작품은 부박한 상업주의 풍조 속에서도 진지하게 문학적 고투를 아끼지 않은 작가의 열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



WEBSITE

마린블루스

www.marineblues.net

야후코리아가 선정하는 '2002 Best of Best' 개인홈페이지 부문 대상 사이트. 2002년 1월 홈페이지를 열고 자신과 친구들을 '성계군', '불가사리군', '꾸꾸미군' 등으로 캐릭터화해 일상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꾸민 야기자기한 만화를 선보이고 있다. 거의 매일 꾸준히 업데이트되며, 웹 상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최근 발간된 책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카투사 기고문

이현규의 축구 이야기

차범근의 기억

-> Bundesliga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조그만 일화 하나로 이번 기고문을 시작해 볼까한다. 주류언론의 획일적인 스포츠 기사에서 탈피, 차별화된 콘텐츠로 스포츠팬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던, 지금은 잠시 문을 닫은 스포츠 전문 홈페이지 '후추'의 편집장이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겪은 일이라고 한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유럽인들에게 호기심에 말을 걸어볼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축구가 일상인 유럽인들이기에 축구 이야기로 말문을 트고자 하였다고 한다.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는 누구죠?'라는 질문에 호나우도, 웨브첸코, 베컴, 칸 등을 대담으로 예상하고 있던 그분에게 돌아왔던 대답은 환한 미소와 치켜세운 엄지, 그리고 바로 이 선수였다.



제공사진

80년대 분데스리가에서 최고의 공격수로 명성을 날렸던 차범근 전 국가대표감독

분데스리가, 그리고 차범근

40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독일의 축구리그인 분데스리가는 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이탈리아, 스페인, 잉글랜드 등 유럽의 주류리그에 비하여 리그의 실력과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70~80년대에는 독일 축구 전성기에 힘입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당시 최고수준의 리그였다.

차범근은 79년부터 89년까지 당시 세계 최고의 축구리그였던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308게임의 외국인 최다 출전기록과 98골의 외국인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고(이 기록은 현 바이에른 뮌헨 소속인 에우베르 선수에 의하여 깨졌다) 소속팀이었던 프랑크푸르트와 바이에른 레버쿠젠에게 유럽축구협회컵(Uefa Cup)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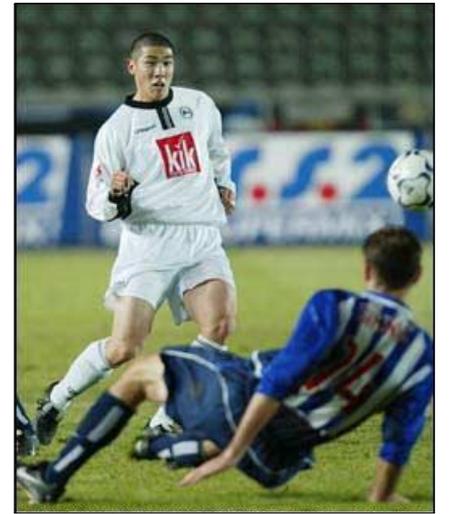
을 선사했다.

유럽을 호령하던 클럽들인 AC밀란, 레알 마드리드 등도 차범근의 프랑크푸르트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했으며, 특히 1988년 레버쿠젠 소속 당시 UEFA컵 결승 2차전, 극적인 3번째 골을 성공, 나락의 끝에 빠진 팀을 동점으로 만들어 승부차기 끝에 팀을 창단 이후 처음으로 우승시켰던 장면은 축구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꼽힌다.

20세의 어린나이에 당시 보루시아 팀에서 뛰던 '게르만의 혼' 마테우스는 UEFA컵에서 차범근과의 대결에 완패한 직후 인터뷰에서 차범근을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고 칭하며 정상급의 기량을 선보인 차범근에게 경의를 표했다.

마테우스와 차범근은 이외에도 여러 차례 격돌하였으며 차범근의 스피드와 테크닉에 맞서며(당시의 마테우스는 차범근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다) 한층 성숙한 선수로 발전, 1990년 월드컵 MVP를 차지하며 독일 축구 전성기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마테우스는 차범근은 '자만하고 나태해 있던 자신에게 신선한 충격과 동기부여를 준 선수'였다고 당시의 그를 회고하고 있다.

79~80시즌 프랑크푸르트 소속 당시 차범근은 세계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으며, 85~86시즌 레버쿠젠 소속 당시에는 분데스리가 MVP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독일 대표팀 감독은 차범근의 귀화를 권할 정도였다. (물론 차범근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 한정된 지면에 차범근의 활약상과 기록을 적기에는 그가 남긴 업적은 너무나도 거대해 보인다.



제공사진

차범근 전 국가대표감독의 아들 차두리가 분데스리가에 진출, 활약하는 모습

지도자 인생, 그리고 미래

선수로서 세계 최고였던 그였지만, 지도자로서의 인생은 그리 평탄하지 않은 않았다. 특히 98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당시 승승장구하며 '축구 대통령'으로 불렸던 그가 본선에서의 부진으로 두 게임 만에 경질당하고 국내 언론에 의해 비난 받았던 시기는 그의 커리어에서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후 승부 조작설 등이 언론에 왜곡 보도되는 등의 힘든 시기를 보냈으나 MBC 축구해설가로 복귀, 방송 3사 비교 축구 중계 시청률 1위를 달성하는 등의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제는 그의 아들인 차두리선수가 분데스리가에 진출, 제2의 차범근이 되기 위해 날개짓을 하고 있다. 과연 그는 독일에서 또 다른 차범근화를 이어갈 것인가.

41통신대대 상병 이현규



제공사진

현재 세계 최고의 골키퍼라고 일컬어지는 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올리버 칸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Talk N' Talk

제 19 장

* 얼굴이 창백해 보이네요.

어떤 사람이 몸에 이상이 있을 땐 얼굴 색이 창백해집니다. 특히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경우나 먹은 음식이 체했을 땐 금새 표시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연습합니다.

Topic : "얼굴이 창백해 보이네요."
You look pale!

주제연구)

pale 을 사전에서 찾아 보면 '창백한', '안색이 좋지 않은' 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look pale 이라면 '그 사람이 pale 하게 보인다' 즉, '창백해 보인다' 입니다.

A: Sam, is anything wrong? You look pale, today!

B: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A: Why not?

B: I had a fever and the chills.
번역)

A: 샘,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요!

B: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A: 왜 못 잤어요?

B: 몸살이 났거든요.

덧붙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살'을 영어로는 fever and chill이라고 합니다. fever 는 '열'을 의미하고 chill 은 '추워서 덜덜 떠는 것'을 말하지요.

* 발목이 아파요.

운동을 하다보면 가끔 발목을 접지르는 부상을 입기도 하지요? 이번엔 그럴 때 쓰는 표현을 배우도록 합시다.

Topic : "발목이 아파요."

My ankle hurts!

주제연구)

이 표현에 동사로 쓰인 hurt 의 사용을 조금 더 보시면,

1) Love hurts. "사랑은 아픔만 주네."

2) The story is hurting me.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다."

3) You are hurting me. "네가 날 아프게(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한단 말야"

A: What's the matter? You're limping.

B: My ankle hurts.

A: Since when?

B: This morning. I fell off my bike on the way to school.
번역)

A: 무슨 일 있었어? 다리를 절고 있잖아?

B: 발목이 아파서 그래.

A: 언제부터 그랬어?

B: 오늘 아침부터. 학교 오는 길에 자전거에서 넘어졌거든.

덧붙여)

영어로 표현을 하실 때 완전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영어 자체가 어려워지고 싫증이 납니다. 예를 들어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는 표현을 긴 문장을 만들 필요 없이 간단히 Since when? 이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 손목을 삐었어요.

'손목이 삐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관절이 약해서인지 자주 부상을 입으시죠. 자, 함께 보실까요?

Topic : "손목을 삐었어요."

I sprained my wrist.

주제연구)

wrist는 손목입니다. 이 단어를 더 연습해 보면, She took me by the wrist. (그녀가 내 손목을 잡았다.) It's a nice wrist watch. (멋진 손목 시계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익혀주세요.

A: I sprained my wrist.

B: Doing what?

A: I was lifting some weights at the gym last night.

B: Did you remember to warm up before lifting heavy weights?

번역)

A: 손목을 삐었어요.

B: 뭐하다가?

A: 어젯밤에 체육관에서 역기를 들다가 그랬어요.

B: 무거운 역기를 들 땐 반드시 준비운동(warming up) 해야 한다는 걸 잊었어요?

덧붙여)

미국인들은 체육관에서 역기 등을 들면서 운동하기를 즐깁니다. lifting weights 라면 '역기를 들다' 정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참고로, weight lifting 는 '역도'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 허리가 아파요.

대다수의 미국 성인들은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아마 너무 폭신한 침대가 그 원인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 이번 표현처럼 "I have some back pain." 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요.

Topic : "허리가 아파요."

I have some back pain.

주제연구)

pain 은 말 그대로 '아픔' 또는 '지속적인 고통' 입니다. 이런 고통을 없애주는 약을 '고통을 죽이는 약' 이라 하여 pain killer 라고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두세요.

A: What's the matter?

B: I have some back pain.

A: Did you sleep wrong?

B: I guess so.

번역)

A: 무슨 일 있어?

B: 허리가 아파서 그래.

A: 잠을 험하게 잤나 보다.

B: 그런 것 같애.

덧붙여)

예를 들어 Are you sick?을 "어디 아파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편찮아 보이네요."라고 긍정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 콧물이 흘러요.

환절기엔 감기 환자가 많고 그 감기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 중 하나가 콧물이 흐르는 것이지요. 그러니 '콧물이 흘러요.' 라는 표현을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겠죠?

Topic: "콧물이 흘러요."

I have a runny nose.

주제연구)

'콧물이 흐르다' 라는 말을 영어로는 runny nose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직역해서 '코가 흐르다' 라고 하면 안되겠죠?

A: How do you feel?

B: I'm okay except for my nose.

A: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B: I've had a runny nose all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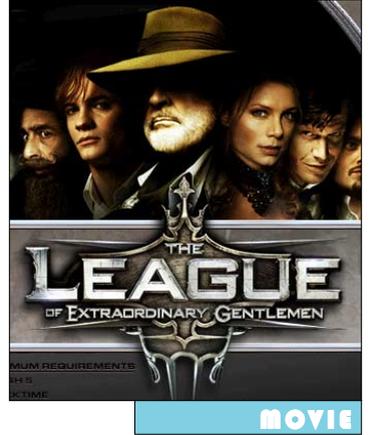
번역)

A: 기분이 어떠세요?

B: 코(감기)만 빼곤 괜찮아요.

A: 코가 어떤데요? (코에 무슨 문제가 있지요?)

B: 하루 종일 콧물이 흘러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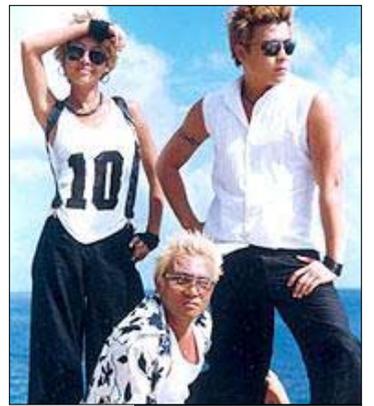


젠틀맨리그

감독: 스티븐 노링턴

주연: 손 코너리

영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빅토리아 시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전쟁무기 판매로 권력을 장악한 '팬텀'은 이에 반하는 계략을 꾸민다. 이에 '젠틀맨 리그'라는 이름으로 마스터 헌터 '알란', 뱀파이어 미나, 스파이 톰, 불사신 도리안, 할로우맨 로드니, 캡틴 네모, 야수 지킬앤하이드가 하나가 되어 팬텀과 한판 대결을 벌인다.



TOP CHARTS

쿨

결혼을 할거라면

- 2.아틀란티스 소녀/BoA
- 3.바보처럼 / 김민종
- 4.안녕 / 박혜경
- 5.Missing You/Fly to the Sky
- 6.거부/Big Mama
- 7.아껴둔 이야기 / 강성훈
- 8.소주 한 잔 / 임창정
- 9.니가 참 좋아 / 주얼리
- 10.한번 단 한번 /Seven
- 11.Stay/Nell
- 12.Shine/Sugar
- 13.악으로/김진표

무대 위의 타오르는 열정 유니



카투사 신문 장승모

'저 가수가 누구지?' 무대에 선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은 그녀를 본 모든 이에 게 이와 같은 궁금증을 남겼다. 이렇게 많은 이의 시선을 단숨에 끌어들이는 주인공, 바로 유니이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유니입니다! 저는 81년 5월 3일에 태어났고요, 현재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최근근황
삼 년 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음반이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연기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계속 가수활동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데뷔하게 된 계기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에요. 어느 토요일이었

는데 TV 프로그램 '어른들은 몰라요'의 오디션이 있었어요. 그때 별 뜻 없이 오디션을 보게 되었어요. 궁금증 만으로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 방송국에서 며칠 뒤

하게 되다 보니 그 이미지가 너무 오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주병 이미지도 강했고요. 그러면서 '가수가 되기 위한 연령층이 낮아는데 이렇게 연기만 하다보면 정작 하고 싶던 가수를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 끝에 연기자의 길을 포기하고 가수로 변신하게 되었어요.

-연기자와 가수의 차이점
연기자는 절제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감정 표현 같은 거요. 이와 반해 가수의 경우에는 주어진 3분 안에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발산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더 시원스럽지요. 이런 차이 때문에 저는 가수를 선택한 것 같아요. 가수가 저에게는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타이틀 곡 '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
장르는 마이애미 락이에요. 아직까지 한국 가요계에는 없다가 이번에 새로 들

을 많이 보고 중간 중간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요.

-연예인임을 가장 실감할 때
솔직히 제가 예전에 연기를 할 때에는 연예인임을 그리 실감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일상생활에는 별로 실감을 못하지요. 그런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연예인임을 느낄 수 있어요. 무대에서 제가 하는 모션 하나하나에 관객들이 열렬히 환호해줄 때 그 때가 가장 실감이 나지요.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한 몸이 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관객들의 그 모든 기를 제가 받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음악관
저는 팬들에게 항상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통 자신의 앨범



이 늘 어날수록 자신의 색깔이 점점 정해지잖아요. 그게 그 사람만의 색깔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 공연에서 환호해주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아직은 미흡한 가창력은 물론 춤과 무대매너 두루두루 갖추고 싶어...

지난 수년간 당시 이해련이라는 이름으로 탄탄한 연기자의 길을 걸어오던 유니는 돌연 브라운관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그리고는 정확히 삼 년이 지난 올해, 가수로 화려하게 변신한 모습으로 다시 브라운관을 찾았다. 끊임없이 발산되는 열정을 무대에서 쏟아내기 위해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그녀, 이제 그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가요계를 뜨겁게 달구길 기대해본다.

에 촬영이 있으니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연기자에서 가수로 변신한 사연
저는 어릴 적부터 가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연기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가수의 꿈을 접고 연기만 하다가 연기를 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어요. 강한 성격의 역을 많이

어은 장르예요. 그리고 매우 빠른 박자의 노래이고 제 목소리의 톤도 허스키하기 때문에 아마 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성스러움보다 강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의 제목 '가'에서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노래는 이별에 관한 노래예요. 슬픈 이별이 아니라, 헤어지자고 말하는 남자 때문에 처음에는 괴로워하지만 곧 그 남자에게 차갑게 '가버려'라고 말하는 여자를 일인칭으로 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의 가사와 같은 일이 제게로 실제로 벌어진다면 저 역시 이 노래처럼 행동할 거예요. 저를 싫다고 하는 사람인데 같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너보다 더 잘난 남자 찾아 갈 거야'라는 가사가 있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지요! (웃음)

-군인이 멋있어 보일 때
지금쯤 아니지만 예전에 제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제대할 때까지 기다렸었는데요, 힘든 군생활 하면서도 그런 내색 하나없이 제게 편지를 써줄 때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자신도 많이 힘들텐데 저를 걱정해주니까 감동적이더라고요.

-군입대를 남겨둔 남자에게 하고 싶은 말
예전부터 군대에 간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어요. 군대가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시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취미
저는 책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남자분들도 군대에서 책을 많이 보신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저는 여가시간에는 책

이자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점점 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변신을 거듭할 생각이예요. 그리고 아직 제가 가창력 등 미흡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해서 가창력은 물론이고 춤과 무대매너도 두루두루 갖추고 싶어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카투사에게 한마디
제가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에 무대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관객들과 의사소통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환호해주신 분들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네요. 카투사 분들은 일반 한국군 분들과는 달리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겠고, 또 이와 동시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 한국군 분들처럼 힘든 군생활을 하시겠지만, 남은 군생활을 허비하지 마시고 가치관을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라요!

상병 장승모



카투사 신문 장승모

프로필
본명: 허운
생년월일: 1981년 5월 3일
키: 168cm
몸무게: 48kg
학교: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 2학년